

『기록입문』
(유귀훈 지음, historybox, 2012)

박 종 연*

레코드(Records)와 아카이브즈(Archives)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즈를 둘 다 우리말로 ‘기록’이라 부른다. 그러나 두 단어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레코드는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 내용·구조·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반해 아카이브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입수한 기록이 생산·입수된 직접적인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레코드와 아카이브즈의 의미는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학을 막 시작하는 학생 및 대중에게 이 구분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기록입문’은 이러한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저자가 기업사를 편찬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레코드는 ‘기록의 생산’이고 아카이브즈는 ‘기록물의 관리’라고 정의하며, 레코드의 관점에서 기록의 생산을 강조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저자가 강조하는 기록의 생산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기록을 공기에 비유하여 '너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오히려 그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기록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보편화되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록을 '복기'하여 활용한다. 예컨대 프로 바둑기사가 기보(棋譜)를 복기하거나, 축구감독들이 경기 비디오를 분석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기록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록을 의도에 맞게 생산하고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기록의 본질적 가치는 이처럼 활용에 있으며, 활용이란 개인의 암묵지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형식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되고 활용하는 기록의 종류는 무엇인가? 메모도 기록으로 볼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물음에 저자는 기록의 종류를 공공기록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기록의 생산자가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을 조직화하는 것을 모두 기록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예로 보고서, 기사, 여행기, 일기, 자서전, 회고록, 전기, 평전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한 메모는 기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기록과 메모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메모는 있으나 기록은 부재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종이기록과 전자기록 모두 조직화 되지 못하고 메모로만 남아 활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기록입문'은 저자가 기업을 편찬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기록의 생산은 민간기록에 한정되어 있다. 일상에서 개인기록의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레코드라고 하

는 것이 한 개인이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기에는 그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범주가 넓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현재 생산되고 활용되고 있는 모든 기록은 레코드이다. 굳이 아카이브와의 구분을 위해 레코드를 ‘기록의 생산’으로 정의하였다면 저자는 공적 영역에서 생산되는 레코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레코드의 유형이 개인기록으로 한정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극단적으로 이분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점을 뒤로하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을 생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회사나 조직에서 정형화된 기안문이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정작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기껏해야 일기 쓰는 정도로 자신이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위안 삼는다. 저자는 이러한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제의 선택, 관찰, 메모, 구성, 묘사의 방법으로 기록 생산하기를 제안한다. 흥미를 가진 ‘무엇’을 정하고, 범위를 설정해서 관찰하고, 메모하고 이를 구성(조직화)하여 표현하며 객관적이기보다는 각자의 시선에서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는 기록 만들기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기록을 생산하는 것의 출발은 흥미를 가지는 것이며 자신의 의도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산된 기록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는 현재 기록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인 공동체 아카이브¹⁾ 혹은 일상 아카이브²⁾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아카

1) 관련된 국내 논문으로는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

이브 또는 일상 아카이브는 거대 담론이 지배하는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록학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의 조직화방안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된 기록을 ‘어떻게 기록화하는 것인가?’가 화두이다. 그러나 기록화 방안만을 생각하기보다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공동체 혹은 일상 아카이브에서의 기록화 방안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록입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본다면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제18호, 한국기록학회, 2008 ;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한국기록학회, 2012 ;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한국기록학회, 2012 등이 있다.

2) 일상 아카이브와 관련된 논문은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 『기록학연구』 제29호, 한국기록학회, 2011.